

韓美 식품유통기한 분쟁 타결 - 96년 7월 1일자로 완전자율화 합의 -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제소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에 회부됐던 식품유통기한 문제를 96년 7월 1일자로 완전자율화하기로 하고 20일 워싱턴에서 朴建雨 駐美대사와 캔터 美무역대표(USTR)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은 미국육류업계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미통상법 301조 청원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된 분쟁을 극적으로 타결 301조 처리 절차와 WTO분쟁 해결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외무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냉동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유통기한과 육류를 제외한 냉동식품의 자율화 시기와 관련, 당초 요구해온 12개월 유통기한 및 금년 10월부터 자율화 입장을 철회하고 우리측의 9개월 유통기한 및 96년 7월

자율화안을 수용했다.

반면 우리측은 진공포장 냉장육의 자율화시기에서 당초의 97년말 자율화안(이산화탄소 주입시는 96년 7월)에서 일부 양보, 이산화탄소 주입여부와 관계없이 96년 7월부터 일괄 자율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미국측 관심사항이었던 진공포장 냉장육의 유통기한은 미국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쇠고기 100일, 돼지고기 50일 대신 우리측 안인 90일과 45일 안을 각각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식품유통문제는 지난 4월말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무역실무위에서 본격 제기돼 교섭을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미측이 지난 5월 4일 이 문제를 WTO 분쟁절차에 회부, 양측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한차례 양자협의를 가진 바 있다.

■ 한미간 식품유통기한 합의내용

	구 분	미국측 요구	우리측 협상안('95.4)	합의내용
자 율 화 시 기	·진공포장냉장육	96년 7월 1일	96년 7월 1일(단, CO ₂ 주입)	96년 7월 1일
	·냉동식품			
	·육류냉동식품 ·피자 등 육류 이외의 냉동식품	96년 7월 1일 95년 10월 1일	96년 7월 1일 96년 7월 1일	96년 7월 1일 96년 7월 1일
잠 정 유통 기 한	·진공포장냉장육	돼지고기 50일 쇠고기 100일	돼지고기 45일 쇠고기 90일	돼지고기 45일 쇠고기 90일
	·냉동식품			
	·냉동쇠고기	12개월	12개월	12개월
	·냉동돼지고기·가금육	12개월	9개월	9개월
	·분쇄가공육	3개월	3개월	3개월
	·냉동소시지 ·육류 이외의 냉동식품	3개월 12개월	3개월 9개월	3개월 9개월

품 목 \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햄	30일	40~60일	50~100일	50~100일
소시지	30일	40~60일	50~100일	50~100일
베이컨	15일	40~60일	50~100일	50~100일
캔	3년	4년	4년	4년
유통기한 표시규정	식품공전에 규정	3개월 이내에서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	업체가 최대의 가식기간을 표시	업체자율로 실험에 의해 설정

美 輸入肉 육가공협회 직판허용 요구
- 韓美 쇠고기 분기별 협의회 개최 -

미국이 수입쇠고기의 슈퍼그룹간 판매, 육가공협회의 직판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과 미국은 5월 10일 오후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쇠고기 분기별협의회를 개최하고 쇠고기 교역과 관련된 양국의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한국육가공협회가 수입쇠고기를 가공하지 않은 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SBS(동시입찰매매방식)로 쇠고기를 수입하는 6개 슈퍼그룹간 상호교환 판매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비중이 늘어나는 SBS방식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운용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김달중 농림수산부 정책과장 및 외무부 관계관, 업계대표, 미국측에서 존 차일드 농무관 및 육류수출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 美육류 수입증가율 세계 최고
- 작년 쇠고기 72,486t, 88년의 12.1배

미국 육류의 우리나라 수입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미국 쇠고기와 그 부산물 수입은 7만2천4백86t(2억4천만달러)으로 쇠고기수입을 일시 중지했다 재개한 88년 5천9백86t(2천7백만 달러)에 비해 12.1배가 늘었다.

같은 기간중 미국의 육류수출은 1.8배가 늘어났으며 나라별 수입은 일본 0.6배, 캐나다

3.9배, 멕시코 2.3배, 홍콩은 3배 증가했고 유럽연합은 81.1% 감소했다.

또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4천6백85t(8백30만달러)으로 수입이 처음 시작된 89년에 비해 4.9배, 93년보다는 3배 늘어났다.

반면,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증가율은 5.5%, 멕시코는 31.4%, 캐나다는 54%, 홍콩은 38%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단가는 t당 3천3백10달러로 일본 4천3백1달러, 캐나다 3천4백63달러에 이어 세번째 높은 가격이었으며 홍콩 3천43달러, 유럽연합 2천6백59달러, 멕시코 2천3백87달러 등이었다.

축산업계 赤-白色肉 색깔논쟁 일단락
- 양계협 육계계열협 신문에 사과광고 -

닭고기 업계와 소, 돼지고기 업계간에 벌여졌던 적-백색육 색깔 논쟁이 일단락된다.

대한양계협회와 육계계열화협회의는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광고를 하면서 소 및 돼지사육농가에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 광고를 신문에 냈다.

양계협회등은 사과광고에서 “문안 검토를 충분히 분리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소비자에게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오해의 소지를 남긴 점과 타 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수입개방화시대에 축산관련 업계와 합심해 국내 축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닭고기 관련단체들이 사과광고를 냈으므로 더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적색육을 구울 때 암유발 물질이 형성된다”는 양계협회 등의 광고로 시작된 축산업계의 색깔논쟁이 일단락되게 됐다.

축協 육가공제품 전문브랜드 도입

- 심벌도 등록 '목우촌 델리쇼' 1호점 개점 -

축협중앙회는 7월 3일 육가공제품 시장진출을 앞두고 햄, 소시지 등의 제품에 사용할 전문 브랜드 '목우촌'과 심벌 등을 공식등록했다.

축협은 또 전북 김제의 육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축협 목우촌 델리쇼 1호점'을 서울 성내동 축협중앙회 별관 1층에 개점했다. 축협은 지난 92년부터 3백90억원을 투입, 전북 김제에 하루 72t(돼지 2천마리 도축)의 생산 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육가공공장을 설립했으며 현재 9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시험가동중이다.

이 공장에서는 썬돼지, 사료, 사양기술과 자금 등을 양돈농가에 일괄지원하고 이렇게 생산된 돼지고기를 전량 구매해 햄, 소시지 등 돈육가공품으로 생산, '목우촌'이라는 상표로 내놓는다.

在美 이유방 박사, 새로운 도살방법 개발

재미한국인 육학자 이유방 교수(캘리포니아 대학)와 템플 그랜딘 교수(콜로라도 대학)에 의해 개발되어 특허가 신청된 새로운 도살방법으로 미국의 아리조나 한 도살장에서 가축을 도살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 새로운 도살 방법은 기존의 도살방법에 비해 매우 인간적이며 소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 육량감소를 줄일 수 있고 육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수급조절용 돼지고기 77%공매 끝나

정부는 금년도 수입돼지고기 약 40,000톤(MMA 17,544톤, 수급조절용 22,100톤)중 MMA물량 17,544톤은 일부량을 제외한 수입량이 이미 국내 도착이 완료되어 1일 100-150톤의 냉동돼지고기를 전국 도매시장을 통해 방출하고 있으며, 수급조절용 22,100톤 중 17,094톤은 수입권 공매를 지난 6월 9일 마감하였으며, 이중 일부는 5월 15일 국내 도착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전국 도매시장을 통해 방출되고 있다.

이번 수급조절용 돼지고기의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삼겹살이 총 9,384톤으로 전체의 54.9%에 달하며 어깨등심 3,744톤, 앞다리 2,630톤 갈비 1,337톤을 수입하며 수입국별로는 미국에서 38.2%에 달하는 6,534톤을 수입하고 그 다음이 덴마크 3,243톤, 캐나다 2,787톤, 영국 1,920톤, 아일랜드 1,311톤, 네델란드 634톤, 대만 396톤, 스웨덴 269.6톤으로 각각 나타났다.

농심 육가공시장 진출

라면과 스넥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농심이 육가공시장에 진출한다.

농심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덴마크의 육가공 전문업체인 튜립社로부터 돈육제품과 햄등 육가공제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혀 국내 육가공업체들에 위기감을 더해 주고 있다.

대기업으로서는 네번째로 육가공시장에 진출하는 농심은 국내 육가공원료가 비쌀 뿐 아니라 신규설비투자가 어려워 완제품 수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94년 육가공업체 적자 268억6천4백만원

한국은행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수입산 육류 통조림이 급증하면서 19개 국내 육가공업체들의 94년 적자가 전년대비 79.4% 늘어난 268억6천4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